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4월 28일

교회력(다해), 전체 22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둘째 주일 성령강림절 창조절

✠ 오늘의 말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



빛방울을 품은 분재 소나무, 지난 4월26일 오전 정용섭 목사 서재 창문 밑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이번주는
2층 아트갤러리 1실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체 삶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구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 다함께

*공동기도 ... 다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완성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속의 허탄한 생각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성령으로 주관해주시옵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전체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착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또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토대가 빈약해서 종종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영생의 신비를 안고
다시 새롭게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함께



***사죄기도 ... 다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주세요. 겉으로는 생명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 순종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시기심으로 바라본 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삶의 행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했으며,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우리의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천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92장 (예수님 부활했네) ... 다함께

John of Damascus (8세기)

문성모

굿거리

1. 믿 - 는 자 여 다 - 나 와 기 - 뻐 노 래 하 세 -
2. 사 - 홀 만 에 사 - 졌 네 아 - 침 해 가 솟 듯 -
3. 여 - 인 들 이 보 - 았 네 부 - 활 예 수 님 을 -

주 - 가 자 기 백 - 성 을 놓 - 아 주 시 었 네 -
무 - 덤 문 을 여 - 시 고 승 - 리 하 시 었 네 -
제 - 자 들 도 보 - 았 네 사 - 신 주 님 모 습 -

기 뻐 하 라 시 - 온 아 예 수 님 부 - 활 을 -
사 망 권 세 이 - 졌 네 생 명 의 주 - 님 이 -
우 리 모 두 보 - 았 네 십 자 가 밀 - 에 서 -

기 뻐 노 래 부 - 르 세 예 수 님 부 활 했 네 -
죄 의 집 을 푸 - 졌 네 예 수 님 부 활 했 네 -
다 시 사 신 주 - 님 을 확 실 히 보 - 았 네 아 멘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함께

하나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사도행전 5: 27-32 ... 윤동희 집사

성시교독 시편 118: 14-29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함께

나의주님 나의능력 나의주님 나의찬송 나의주님 언제든지 나의구원 되시었네
-의로운자 장막에서 들려오는 환호소리 그합성을 들어보니 바로이런 내용일세
우리주님 오른손이 승리하게 하셨도다 우리주님 오른손이 높이높이 들리더니
-우리주님 오른손이 승리하게 하셨도다 죽지않고 내가살아 해야할일 무엇일까
우리주님 하신일을 널리증거 하는것과 주님께서 내게주신 시련고난 크다하나
-그렇다고 죽기까지 버려두진 않으시리 정의의문 활짝열라 내가들어 가리로다
놀랍도다 주님께서 몸소하신 일이지만 아무래도 우리눈엔 기이하게 보인다네
-바로이날 주님께서 놀라운일 행했으니 즐겁도다 우리모두 주와함께 기뻐하자
주님간구 하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간구 하옵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주님 이름으로 오는사람 찬미하자 우리주님 복주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라
주님께서 밝은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니 나뭇가지 모아다가 잔치제단 장식하라
-내하나님 내주님께 감사찬송 드리려네 내하나님 내주님을 높이높이 기리려네
우리주께 감사하라 감사노래 찬양하라 우리주님 어지시며 인자하심 끝이없네

제2독서 요한계시록 1: 4-8 ... 윤동희 집사

*제3독서 요한복음 20: 19-31 ... 윤동희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함께



설교 피와 해방 ... 이준우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2,4절 ... 다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59장 (기뻐 찬송하세) 1절 ... 다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159장 (기뻐 찬송하세) 2절 ... 다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주일공동예배가 끝났으니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궁극적인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반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사도신경해설 반, 신학과 철학 반, 기도와 교제 반, 청소년 반
- 5월 예배 후 모임 안내
5월 5일 : 반별 모임
5월 12일 : 설교 한결을 더 들어가기 후 전 교우 친교 식사
5월 19일 : 반별 모임
5월 26일 : 반별 모임
- 전 교우 소풍은 교우들의 투표로 5월 1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소: 아치울 마을 윤동희, 이기령 집사 댁)

지난주일 헌금 452,000원
(2019/4/21)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4,5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부활절	2주	4/28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윤동희	윤혜정
부활절	3주	5/5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고중흥	박수진
부활절	4주	5/12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신창식	이기령
부활절	5주	5/19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이유선	양혜선
부활절	6주	5/26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유인규	오미영

4월 21일 설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발췌

새로운 생명, 자유

앞에서 인용한 오늘의 제3독서인 고전 15: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살아있다는 말은 죄와 죽음의 반대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바울은 중으로부터 아들로의 변화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갈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중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나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 즉 지금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중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며, 부활 능력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앙적으로 위로가 될 뿐이지 실제로 고통과 시련에 떨어진 인생들에게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불행한 조건들을 나열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 직원, 지진이 나 화재로 재산의 손해를 본 사람, 큰 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난민, 호스피스 환자 등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저주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연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대답이 쉽지 않기는 합니다.

아들의 자유는 남에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삶의 충만을, 그리고 존재 의미를 누리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계속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놓인다면 그는 아들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걸 이해해주시십시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가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 남녀가 결혼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스타 연예인 부부와 비교하면 장애인 부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면 그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연예인 부부가 남의 시선에 좌우된다면 그들은 종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즉 예수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독불장군이 아닌 한 남에게 인정받는 삶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일반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것에 안주하고, 거기서 만족해하는 삶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거기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의 의무가 아니라 아들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선의 길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즉 부활한 자로,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에 더 가까이 가 보십시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